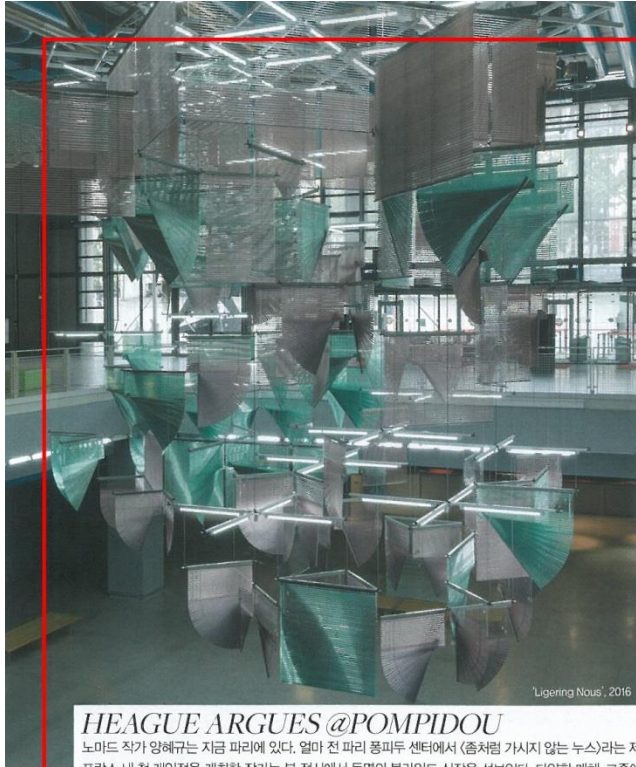


HEAGUE ARGUES @ POMPIDOU

August, 2016 | 정보는 어시스턴트 에디터



'Ligering Nous', 2016

HEAGUE ARGUES @POMPIDOU

노마드 작가 앙헤규는 지금 파리에 있다. 얼마 전 파리 콩피투 센터에서 <춤처럼 가지지 않는 누스>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내 첫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는 본 전시에서 동명의 블라인드 신작을 선보인다. 다양한 매체, 그중에서도 블라인드를 이용한 거대 설치 작업으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온 작가가 이번에 선보이는 신작은 기존의 블라인드 작품과는 달리 자율적인 색과 형태를 재도입하여 초록빛과 연보랏빛 블라인드를 지그재그로 설치한 작업이다. 더불어 작품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던 LED 조명이 다양한 높이에 삽입되어 작품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사물을 추상적인 구성으로 재배열하면서 본래의 맥락으로부터 탈피시키는 작가 특유의 작품 세계는 지하에서 영사되는 비디오품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상영되었던 '쌍과 반쪽' 이름 없는 이웃들과의 사건들의 영상과 음성을 연동시키지 않고 분리된 형태로 재생시켜 새로운 조합을 탄생시키는 것 '누스'는 그리스어로 지성, 사고, 이상 등을 의미한다. 작가의 머릿속을 춤처럼 떠나지 않는 누스의 정체는 9월 5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어시스턴트 에디터/ 정보은



Häagen-Dazs × SEOUL SQUARE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가 스틱바 출시 기념으로 미디어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다. 총 6가지 플레인버(그린티 & 이몬드, 스트로베리 & 크림, 초콜릿 초코 이몬드, 마카다미아 너트 브리틀, 바닐라 캐러멜 이몬드, 슬티드 캐러멜)로 출시된 각 스틱바의 맛과 특징을 시각화한, 입맛 다시게 하는 영상을 선보이는 것. 지금 서울 스퀘어에 가면, 신제품 하겐다즈 스틱바를 눈으로 먼저 맛볼 수 있다.

어시스턴트 에디터/ 정보은



EXHIBITION

헤어초크 & 드 피롱의 예술적 건축

스위스 출신의 젊은 건축가 헤어초크 & 드 피롱이 문 닫은 채로 방치되어 있던 화려발전소를 테이트 모던 갤러리로 재탄생시킨 지 어느덧 16년이 흘렀다. 지난 6월, 중년이 된 두 건축가는 다시금 새로운 테이트 모던을 선보였다. 기존의 테이트 모던을 상징했던 '보일러 하우스'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하우스'는 라이브 아티만을 위한 세계 최초의 전시 공간과 세 개 층으로 이루어진 갤러리, 비와 레스토랑, 런던 시내를 360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까지 다채로운 공간을 자랑하고 있다. 독일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의 새 공간 'Vitra Schaudepol' 또한 헤어초크 & 드 피롱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이제 이곳에서 뮤지엄의 주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새로 생겨난 카페와 숨에서는 쉬어가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미술관들이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오로지 아티스트와 관객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의 지속적이고 매력적인 변화는 창조성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삼는 아트 신에서 마땅히 환영 받아야 할 기특한 성과다.

어시스턴트/ 이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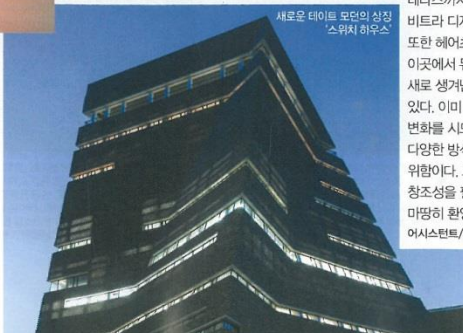
'Vitra Schaudepol'의 외부 전경



'Vitra Schaudepol'의 내부 공간



'스위치 하우스'의 공간감 있는 인테리어



새로운 테이트 모던의 상징 '스위치 하우스'

사진 | 국제갤러리 (©Florian Kleinfelder/장영구), Vitra Design Museum, Switch House, Tate Modern, Chwan Baan